

언어과학연구 74 (2015)

경남 방언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김영선(동아대학교)

Young-Seon Kim. 2015.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Study Kyungnam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74, 21-46.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issues in relation to study Kyungnam dialect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o divide the analysed materials into five units; informant, survey area, transition area, synchronicity of linguistic forms and overall analysis plan of Korean language. In relation to informant, we urge on the need of joint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a represent ability of informants. In ideal studying, it is enough that survey area is one point per a Kun(郡) area. But we argued to make a detailed plan after surveying previous research. And we insisted a dialect research for big cities. In previous studies for Kyungnam dialect, linguistic forms were free from synchronicity test. In order to operate an accuracy research, we claimed linguistic forms of each dialects need to be radically reviewed. Finally, we purported all researches become study's resources to assur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Dong-A University)

Key words 경남 방언(Kyungnam dialect), 제보자(informant), 조사 지역(survey area), 전이 지대(transition area), 언어 형식의 공시성(synchronicity of linguistic forms), 국어의 통합적 분석 계획(integrated analysis plan of Korean language)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15년 6월 17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회 한국방언학회에서 발표한 것의 일부를 새로 고치고 다듬은 것임.

1. 들어가기

방언 연구(조사)는 그 자체로 유의미한 언어학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국어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어의 통합적 기술을 위한 기초적 과정이기도 하다.¹⁾ 해방 전후 일본인에 의해 채록되기 시작한 국어의 방언 조사와 연구 과정은 그 간 개별 방언을 중심으로 진행(최명옥 1994/1998:201)되었으며 지역별로도 풍성한 결과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개별 방언 연구의 전반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몇 가지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방언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제보자와 조사 지역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공시성 확인 과정과 이러한 논의 결과 확보한 자료의 종합적인 해석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언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언 연구에 가감 없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동일한 지역 출생자이면서 연령대가 같은 제보자의 경우에도 확보된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동일 조사 지역임에도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한 이들 70대가 해당 개별 방언의 대표성을 상징하는지, 그렇다면 1970년대나 1980년대의 동일 연령대의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개별 방언 연구 결과물은 대부분 특정 방언의 ‘토속성’(이익섭 1984:66)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 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토속성’은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자 실제적으로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해방 이후 개별 방언의 ‘토속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여전히 개개의 방언은 현재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급속한 ‘전국 방언의 등어화(isoglossization)’(최범훈 1986:10)는 복잡다단한 전이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토속성’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1) 최명옥(1994/1998:201)에서는 국어 방언 연구의 목적이 국어의 일반성과 방언의 특수성을 밝히고 폭넓은 국어사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2) 개별 방언 연구에 집중된 이와 같은 현재 국어 방언 연구는 앞으로 지리 방언, 비교 방언, 대조 방언, 사회 방언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명옥 1994/1998:201).

개별 방언 자료의 수집이 완료된 뒤 이루어지는 자료들의 공시성 확인 또한 신중하게 거론된 바가 거의 없다. 개별 방언의 연구 결과물은 다루어진 방언적 사실이 공시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한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개별 방언 연구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제보자, 조사 지역, 전이지대와 같은 문제는 방언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천착되어야 할 항목들이지만 다루어진 개별 방언이 가지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종합적 모색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제보자, 조사 지역, 전이지대, 방언의 공시성 확보와 개별 방언의 통합적 모색 같은 문제는 각각이 연구 내적, 외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완결된 국어 방언 연구를 위해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 항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제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들은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한 저간의 논의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거의 7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어 방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적용되어 왔다. 특히 이익섭(1984), 이상규(2004) 등에서는 방언 연구를 위한 개괄적인 방법론과 절차 등이 다루어진 바 있는데³⁾ 이들은 방언 연구 조사에 따르는 기초적인 항목으로 제보자, 조사 지역, 조사 항목, 질문지, 질문 방식, 면담, 녹음과 전사, 조사원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⁴⁾이나 질문지, 질문 방식, 녹음과 전사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논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질문지의 체계적 내용과 형식은 한국정신문화원(1980)에서 오래 전에 이미 공개된 바 있다. 물론 제보자나 조사 지역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이미 앞선

3) 박충구(2002)에서 저간의 국어 방언 연구가 사적인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4) 황병순(1996:24)에서는 시대적, 연구별 차이를 들어 조사 항목의 차별화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임석규(2009:331)에서도 환경의 정밀한 파악을 위해 조사 항목의 선정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된 바 없다.

이익섭(1984:68-76)에서는 제보자의 경우 60-70대이면서 2-3명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다. 한편 이상규(2004:135-138)에서는 60대 이상으로 1명의 주제보자로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⁵⁾ 조사 지점에 대해서도 이익섭(1984:64)과 이상규(2004:130)에서는 군의 경우 1군데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정확한 조사 지역 선정을 위해서 핵방안권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방언권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예비조사의 필요성(이익섭 1984:63, 이상규 2004:130)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제보자 조건과 조사 지역의 문제는 그것이 가진 경제적, 시간적 조건을 다양하게 고려한 이상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성격을 띤다. 실제 방언 연구 과정에서는 5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연령대에 걸쳐서, 제보자 또한 대부분의 경우 1명 이상을 지세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 지역 또한 1군 이상, 또는 1면 이상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상적 조건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지역에서 채록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결과가 다르거나 제보자가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물을 제시한 경우는 이들 개별 연구와 달리 집단적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한 개별 방언 자료는 그 자체가 공시성을 전제하고 논의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방언에 대한 연구물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전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탈락 현상에 대한 논의는 형태소에 대한 공시성 여부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 | | |
|-----------------|-----------|---------------------|
| (1) ㄱ. /k'uusə/ | ‘꾸+어서’(夢) | ㄴ. /k'uasə~k'əsə/ |
| /ʃ'huusə/ | ‘추+어서’(舞) | /ʃ'huasə~ʃ'həsə/ |
| /ʃ'uusə/ | ‘주+어서’(授) | /ʃ'osə/ |
| /nuusə/ | ‘누+어서’(尿) | /nosə/ |
| /t'(t)uusə/ | ‘두+어서’(碁) | /t'(t)osə~t'(t)əsə/ |

박정수(1999:100)에 따르면 (1-ㄱ)에서 실현되는 탈락 현상은 주로 경남 중부 지

5) 이에 대해 임석규(2009:340)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70대 이상을 이상적인 제보자로 보고 있다.

역에서, (1ㄴ)은 경남 동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경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1ㄱ)과 (1ㄴ)에 반영된 탈락 현상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1ㄱ)의 경우는 경남 방언에서 흔히 작동하는 순행완전동화 규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지만 (1ㄴ)의 경우, 특히 ‘조서 /ʃosə/’, ‘노서 /nosə/’, ‘또서 /t'(t)osə~t'(t)osə/’의 경우는 그 지역 방언형의 어간과 어미에 대한 공시성 여부가 검증된 뒤 탈락 규칙의 공시성이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조서’, ‘노서’, ‘또서’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주, 누, 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⁶⁾ 모음 탈락 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대부분의 개별 방언 연구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개별 방언의 형태소에 대한 공시성과 이를 기초로 형식화된 규칙의 공시성 여부는 거의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⁷⁾

개별 방언의 형태소에 대한 공시성 판별과 이를 근거로 하여 규칙을 형식화하는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생명체(최명옥 1994/1998:121)로서 방언을 바라보자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생명체로서의 방언 하나하나가 가진 특성과 이들을 특징지우는 메카니즘은 결국 국어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국어의 통합 과정을 유도하는 조건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관련 문제와 기술적 대안

3.1 제보자

제보자와 관련해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한 동일한 연령대의 제보자를 통해 서로 다른 자료를 확보

6) 제시된 자료 또한 엄밀한 검증을 요한다. 울산 방언(신기상 1986), 산청 방언(배병인 1983), 함양 방언(전광현 1979), 고성 방언(정문연 1993), 합천 방언(박덕철 1993)에서는 어간이 장음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7) 이러한 이유로 한성우(2009)에서도 방언 연구 과정에서 공시와 통시의 구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8) 한성우(2009)에서는 방언 연구란 국어의 실제 정립 규명 작업에 필요한 과정이며 이는 개별 방언과 국어, 개별 방언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는 경우의 처리 문제이다. 이익섭(1984:75-76)에서는 방언 조사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보자는 2-3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차 점검 효과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방언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제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보자를 사용하는 경우(강기갑 1985)도 있다.⁹⁾

제보자의 수는 이익섭(1984:75)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보자가 그 지역 방언에 완벽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완벽한 제보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뿐더러 이들에게서 확보한 서로 다른 자료 해석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설사 제보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선정된 제보자가 연령대에서 차이가 나거나¹⁰⁾ 개인적인 언어 능력, 매스컴의 영향, 손자와의 빈번한 접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변인들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보자가 해당 방언을 대표하는 화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실제로 일반적인 제보자 조건¹¹⁾을 모두 갖춘 ‘완벽한 제보자’를 찾아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¹²⁾ 예를 들어 동일한 조사 지역에서 동일한 80대의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오종갑(2001:78)과 김정대(2007:139)의 단모음 체계는 각각 다음과 같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2) 산청 방언 단모음 체계

ㄱ. 오종갑(2001) /이(i), 에(e), 으(i), 어(ɪ), 애(E), 우(u), 오(o), 아(a)/

- 9) 방언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보자 정보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김택구(2000)의 경우에는 경남 전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제보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박정수(1999)에서도 경남 전 지역에 걸쳐 제보자 정보를 제시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채집한 자료를 단일한 경남 방언권으로 처리한 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집 자료가 가지는 이질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보자의 연령이 39세-89세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최중호 1984, 1998)도 있고 동일한 제보자의 취재 결과를 14년 뒤 재사용하는 경우(최중호 1998)도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10) 주제보자와 부제보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김정대(2008)에 등장하는 제보자는 약 30세 정도의 차이가 난다. 산청읍 노순생(1922), 박건조(1951).
- 11) 이상규(2004:135-139)에서 제시한 제보자 조건은 토박이, 나이, 신체조건, 성별, 제보자의 수, 직업, 교육 정도, 지능, 성향 등이다.
- 12) 임석규(2009)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70세 이상의 제보자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ㄴ. 김정대(2007) /이(i), 에(e), 으~어(ɛ), 애(ɛ), 우(u), 오(o), 아(a)/

오종갑(2001)에서는 8모음이지만 김정대(2007)에서는 7모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모음 체계에 대한 (2)와 같은 차이점을 만일 자음 체계나 음운 현상 등으로 확대할 경우 논의가 보다 복잡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 지역에서, 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둘 이상의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잘 정리된 하나의 체계, 하나의 음운 규칙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논의 과정에 어떠한 방법론적, 절차적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의문은 한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거개의 경남 방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운 규칙은 개별적으로 선정된 제보자의 다양한 발화 자료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논의된 해당 방언 연구 목록과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임석규(2009)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미 ‘토속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별 방언이 사라져 가는 현 시점에 지금까지 확보된 앞선 연구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전의 자료는 특정 지역 연구를 위한 준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조사나 연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심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익섭(1984:76)에서 지적한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한다면 학회나 기관을 포함한 공동 조사나 연구 활동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보자와 관련해서 짚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방언의 공시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1960년대에 보고된 70대 제보자와 2010년대에 보고된 70대 제보자가 구사하는 동일 방언이 공시적으로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¹³⁾ 조사 기간이 24년 차이가 나는 산청 방언의 배병인(1983:41)과 김정대(2007:139)에서는 단모음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산청 방언 단모음 체계

ㄱ. 배병인(1983): /이(i), 애~에(ɛ), 으~어(ɛ), 우(u), 오(o), 아(a)/

ㄴ. 김정대(2007): /이(i), 에(e), 으~어(ɛ), 애(ɛ), 우(u), 오(o), 아(a)/

13)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임석규(2009:340)의 기술도 참고 가능하다.

(3)에서 배병인(1983)은 애~에(E), 으~어(ㅟ)'가 모두 중화되었다고 보았지만 김정대(2007)에서는 '으'와 '어'만 중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차이가 24년이라는 시간적 간격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¹⁵⁾ 다만 논리적으로 앞선 조사 결과보다 후대의 결과에서 중화가 덜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조사 지역이 둘 다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제보자가 거주하는 면이 다르다는 한계도 있다. 문제는 당시 비슷한 연령대였던 각각의 제보자가 사용했던 (3)과 같은 단모음 체계의 차이가 2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변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보자의 개인적인 차이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보다 고아범위한 제보자 선정이 필요하다. 한정된 제보자보다 연령대가 비슷한 좀 더 많은 제보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보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규태(2001:51)에서는 진주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모음 체계를 (4)와 같이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4) 진주 방언의 연령별 모음 체계

| | | | | | | | | |
|--------|---|---|---|---|---|---|---|---|
| 60대 이상 | i | e | ɛ | i | ə | a | u | o |
| 40-50대 | i | e | ɛ | ㅟ | | a | u | o |
| 30대 이하 | i | | E | ㅟ | | a | u | o |

(4)는 연령대별 모음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규태(2001: 54)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 방언권에서도 현상이 약간씩 다른 것은 제보자의 연령별 차이점을 역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⁶⁾ 일반적

14) 이 방언의 단모음에 대해서는 김재문(1978), 오종갑(2000)은 8모음으로, 김택구(1991), 김형춘(1993), 박정수(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김정대(2000, 2007), 이현정(2008)에서는 7모음으로, 배병인(1983), 박정수(2008)는 6모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일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음 음가에서도 약간씩 다르다. 이는 특정 방언의 정체성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근열(1997:30)에서 경남 방언의 모음 체계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15) 시간적 간격이 좀 더 벌어지고 동일 지역에 살았던 연령대가 비슷한, 믿을 만한 비교 가능한 제보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6) 세대별 제보자의 방언차 연구는 정영주(1987, 1988) 등에서 드물게 반영되고 있다.

으로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경우를 선호한다.¹⁷⁾ ‘순수성’, 또는 ‘정체성’의 확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에서와 같이 비슷한 연령대의 경우나 (4)와 같이 연령대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것을 특정 방언을 대표하는 모음 체계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제보자와 관련된 이와 같은 미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와 공동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는 제보자의 연령에 관한 한 통용되는 일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조사 지역

조사 지역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안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방언 연구에서 제시된 조사 지역이 해당 방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국어 방언 연구는 행정 구역과 조사 지역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방언은 최소한 몇 개의 군을 포함한다. 물론 예비 조사를 통하여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음운, 문법 현상이나 음운 체계 등에서 이질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다반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군이나 면 단위로 이루어진 방언 연구 자료나 내용이 핵방언권(core)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정 방언 영역이 예상되는 방언권보다 좁은 지역에 한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남 방언의 특성에 대한 논의나 방언권 설정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산청 방언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지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7) 임석규(2009)에서 주장한 것처럼 건강한 70세 이상의 제보자를 발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방언 연구가 사라져 가는 말들의 ‘토속성’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50-60대, 또는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 사용하는 방언형, 또는 현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다. 이 또한 방언의 한 양상들이기 때문이다.

(4) 산청 방언 조사 지역¹⁸⁾

| 연구자 | 조사 지역 | 조사 내용 |
|---------------|---|--|
| 배병인 (1983) | 삼장면: 이중엽(60세) 등 8명 차황면: 신현택(68세) 등 3명 오부면: 권점순(75세) 등 2명 생초면: 송점이(82세) 등 7명 산청읍: 조무순(65세) | - 음운 체계 - 음운현상: 어간말이 각각 모음과 자음인 경우 |
| 류성기 (2013) | 유주용(72세): 차황면(출생) → 산청읍 민영조(73): 금서면 → 산청읍 | - 대명사, 조사 - 종결어미와 경어법, 연결어미, 시제, 부정 사동과 피동, 보조용언, 부사·관용구·속담 |
| 박정수 (1976) | 생초면: 연구자 본인 | -/ㅏ 음소 |
| 박정수 (1999) | 산청읍: 민영출(73세) 단성면: 박개춘(70세) | - 음운 체계 - 동화: 모음조화, 완전순행동화, 원순모음화, 비모음화, 전설모음화, 올라우트 - 축약: 과도음화, 단모음화 - 탈락: 반모음 탈락, 동일 모음 탈락, ‘하’ 없애기 |
| 오종갑 (2000) | 산청읍: 문왈용(80세), 조두리(73세) | - 동화: 원순모음화, 완전순행동화 - 축약: y 활음화, w 활음화 - 탈락: 어간말 ‘아/어’ 탈락, 어간말 ‘으/어’ 탈락, 어미 두음 ‘으/어’ 탈락 |
| 오종갑 (2001) | 산청읍: 문왈용(80세), 조두리(73세) | - 자음 체계 - 모음 체계 -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순음화, 연구개음화, 유기음화,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후음 탈락, 유음 탈락 |
| 강기향 (1983) | 생초면: 민함포(85세), 강금순(53세) (함양 출생) | - 성조 |

18) 기존 경남방언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은 조사 지역과 제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대부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초기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 | | |
|---------------|---|--|
| 이현정 (2008) | 금서면: 박영이(83세) 단성면: 권재이(83세) 산안면: 유수경(79세), 전진례(82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 체계 및 모음 체계 - 어간 및 어미 기저형 목록 설정 - 교체: 평파열음소화, 경음소화, 비음소화, 연구개음소화, 양순음소화, 유음소화, 어미초 ‘이/어’ 교체, 어미초 ‘이/어’의 완전순행동화, 원순모음소화, ‘j, w’ 활음소화 - 탈락: 자음소군단순화, 성문음소 탈락(ㅎ, ㄹ), 연구개음소 탈락(ㅇ, ㄱ/ㄱ/ㄱ), ㄴ 탈락, 유음소탈락, 활음소탈락, 모음소탈락(어간말 ‘이/어’, 어미초 ‘어’) - 삽입 - 축약: 유기음소화, 경음소화, 모음소축약 |
| 김정대 (2007) | 산청읍: 노순생(86세), 이계남(81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체계(자음, 모음, 성조) - 활음화와 어미 초 ‘어’의 완전 순행동화 -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 인칭 대명사의 곡용 - 격조사 - 종결어미(명령법, 청유법, 의문법, 서술법) - 이다 - 어휘 |
| 김정대 (2008) | 차황면: 민병준(76세), 박분임(75세) 산청읍: 노순생(86세), 이계남(81세), 박건조(57세) 오부면: 홍석주(72세), 박인순(73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칭어 |

(4)에서 보듯이 산청 방언에 대한 조사 지역은 산청읍, 차황면, 생초면, 금서면, 단성면, 산안면, 오부면 등 7개 지점으로 한정되어 있다. 조사 내용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서 상호 교차 분석이 쉽지 않아 산청 방언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기 쉽

지 않다.¹⁹⁾ 특히 산청 방언을 다룬 대부분의 논문이 조사 지역²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조사 지역이 산청 방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지점인가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진행된 연구 결과 또한 수궁하기 쉽지 않다.

이익섭(1984:63-64)에 따르면 조사 지역을 선정할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는 한 군데 정도를 선택하여 방언차를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방언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찾는 일은 방언차라는 상대적인 차가 무엇인지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방언의 특징이라는 것 또한 그것의 전체적인 특성이 정리, 제시된 뒤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모음에 국한할 경우 (5)와 같이 박정수(1999:29-35), 오종갑(2001), 이현정(2008)에서 제시한 체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산청 방언 단모음 체계

| | | | | | | | | | | | |
|-----------|------|----|---|----|----------|----|----------|----|---|----------|--------|
| 박정수(1999) | 단모음 | i | | u | | | ɕ | o | E | a | 6모음 |
| | 이중모음 | | | ju | | | jɕ | jo | | ja wa | 4 1 |
| | | | | | | | | | | | |
| 오종갑(2001) | 단모음 | i | i | u | e | | ɕ | o | E | a | 8모음 |
| | 이중모음 | | | ju | je we | | jɕ wɕ | jo | | ja wa | 4 4 |
| | | wi | | | | | | | | | |
| 이현정(2008) | 단모음 | i | | u | e | ɛ | ɕ | o | | a | 7모음 |
| | 이중모음 | | | ju | je we | je | jɕ | jo | | ja wa | 6 3 |
| | | wi | | | | | | | | | |

(5)에서, 산청 방언을 대표하는 단모음 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이러한 비균질적인 현상을 좀 더 많은 현상들로 확대할 경우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지역적 차이인지 아니면 체보자에 의한 차이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조사 지역으로는 산청읍, 단성면(박정수 1999), 산청읍(오종갑 2001),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이현정 2008)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체보자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언 연구 과정에서는 기존 방언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조사 지역 선정 작업을

19) 이러한 사실은 방언권 구획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20) 이 경우 조사 지역은 구체적인 체보자 정보가 제시된 곳을 의미한다.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예비조사 과정에서는 최명옥(1994/1998:123), 김정대(2000)에서 언급한 조사항목의 단일화를 지향할 수도 있다. 통사, 형태, 음운, 의미 등과 같은 세부적인 현상까지 고려할 경우 이질적인 현상은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 경우 개별 방언의 정체성과 인접 방언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개별 방언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방언의 차이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조사 항목은 각각의 방언 특성을 극단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적은 수로 국한시켜야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대도시 지역의 개별 방언 인정 여부와 관련된다. 다음은 기존의 부산 방언 조사 지역이다.

(6) 부산 방언 조사 지역

| | | |
|---------------|---|---|
| 이근열 (1997) | 기장군 일광면: 11명(54세-85세) 장안읍: 17명(62세-84세) | - 음운 체계 - 음운 현상 |
| 이효신 (2004) | 수영구: 송인선(71세) 기장군: 김주순(81세) 연제구: 임근용(72세) | - 음운 체계 - 교체: 평과열음화, 동화, 경음화, 활음화 - 탈락: 자음 탈락, 모음 탈락, 활음 탈락 |
| 김영선 (2012) | 영도구: 임경심(79세) 중구: 이또점(76세) | - 음운 체계 - 음운 현상 |

경남 방언은 부산과 울산이라는 광역시와 8개에 달하는 작은 도시를 끼고 있다. 이 경우 예컨대 부산 방언 조사 과정에서 ‘토속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지홍(1974:10)에 따르면 해운대구, 양산과 인접한 동래구 일부, 사하구에서 사용하는 말이 동래방언과 같은 부산 방언임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5년 현재 도시의 광역화로 인하여 기장군, 강서구 등이 부산으로 편입되었다. 행정 구역과 달리 언어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기장군과 강서구는 각각 김해 방언과 울진 방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부산 방언’, ‘울산 방언’은 성립할까? 유필재(2000)와 박선영(2005)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토속성’을 갖춘 지역과 제보자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물론 ‘부산 방언’, ‘울산 방언’ 등과 같은 기존의 명칭과 범위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방언을 연구하는 것은 타 방언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며 조사 지역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 조사 지역은 핵방언권과 전이지대 등을 가르는 데 관여할 뿐 아니라 방언 분화론 등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 단위가 한 방언권(이익섭 1984:63-64)으로 간주²¹⁾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군 단위에서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70여 년 동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다는 사실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3 전이지대

조사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전이지대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특정 방언권은 다른 방언권과 인접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전이지대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정확한 방언 구획 작업이나 방언 분화론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이지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299개의 경남 방언 자료²²⁾ 가운데서 전이지대의 방언 현상을 다룬 연구는 오종갑(1998), 김재문(1984), 서주열(1966, 1981), 위평량(1999), 홍순영(2005), 김봉국(2011) 정도이다.²³⁾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별 방언 연구가 개별 방언의 ‘토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예컨대 ‘함양 방언’이라고 할 때 함양 방언의 외연을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개별 연구의 결과물만이 존재하며 개별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점에 대한 해석과 정리 작업이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⁴⁾ 전이지대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 21) 최명옥(1994/1998)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도 단위의 중방언권 구획 결과가 타당성이 없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2)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299편의 논문은 국회 전자도서관을 통해 ‘경남 방언, 경남 사투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여 얻은 것이다.
 - 23) 이들은 모두 전남과 경남 접경 지역의 음운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홍순영(2005)은 경북과 경남이 겹치는 합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4)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 결과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함께 최명옥(1994/1998), 김정대(2000)에서 제안된 변별성이 높은 방언 측정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0) 함양 방언 ‘굽(𪎐)+어라’

꾸우(우)라/꾸부라/꾸버라/꾸어라

강대갑(1998:40)에 따르면 함양 서부, 서남, 그리고 산청과 인접한 유림면, 휴천면 일부에서는 ‘꾸우(우)라’가 분포되어 있고 거창과 인접한 안의면 일대와 서하면 일부에서는 ‘꾸부라’가, 함양 중부 지역에는 ‘꾸버라’가 분포되어 있다. 동일 지역(군)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경우 전이지대라는 개념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도 설명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실제로 산청 방언의 ‘꾸:서, 꾸:만’(배병인 1983: 127-128), 거창 방언의 ‘꾸읍떠라/꾸버도/꾸부마’(박명순 1987:11) 등의 존재는 이들 인접 지역이 전이지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서주열(1981:145)에서는 관련 지역을 모두 8지역²⁵⁾으로 나누고 상호 영향 관계를 모색한 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11) 전남-경남 전이지대 단모음 체계

| 전남 방언형 (G) | 등어지대 I (A, C, E, D(악양), F(고전)) | 등어지대 II (D(화개면)) |
|---|---|--|
| $\begin{matrix} /i/ & /i̯/ & /u/ \\ /e/ & /e̯/ & /o/ \\ & & /a/ \end{matrix}$ | $\begin{matrix} /i/ & /i̯/ & /u/ \\ /e/ & /e̯/ & /o/ \\ & & /a/ \end{matrix}$ | $\begin{matrix} /i/ & & /u/ \\ /e/ & /e̯/ & /o/ \\ & & /a/ \end{matrix}$ |
| | | 경남 방언형 (B, F, H) |
| | | $\begin{matrix} /i/ & & /u/ \\ /e/ & /e̯/ & /o/ \\ & & /a/ \end{matrix}$ |

등어지대 I 유형은 우선 백제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남 방언의 영향을 받아 /i̯/가 체계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신라의 영향으로 경남 방언형의 영향을 받아 (11)과 같은 체계를 이루었으며, 등어지대 II 유형은 통일 신라 이후의 경남 방언의 영향으로 /e/가 더해졌다는 것이다.²⁶⁾ 개연성이나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5) A지구: 다압, 옥곡, 진샛(광양시), B지구: 북천, 하동읍, 적량, 황천(하동군), C지구: 마산, 구례읍, 토지, 외곡, 문척, 간전(구례군), D지구: 화개, 악양(하동군), E지구: 봉강, 옥룡, 골약, 광양읍(광양시), F지구: 양보, 고전, 진교, 노량(하동군), G지구: 율촌, 덕양, 여수시, 나진, 돌산(여수시), H지구: 노량, 설치, 남해읍, 창선, 남면, 이동, 삼동, 미조(남해군)

26) 위평량(199:122)에서는 단모음 체계 및 /·/의 분화 과정을 고려하여 전남의 광양, 여수, 구례

전이지대와 방언 분화론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전이지대, 또는 방언 분화론은 방언 구획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극히 미비하다. 이와 같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개별 방언의 사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등어지대 I과 등어지대 II와 같은 병존 방언(mixed lects)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적인 정보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해당 방언의 방언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방언권, 나아가 이들의 하위 방언권에 대해서 이루어진 방언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개별 방언의 사적 논의 부족 현상은 전이지대 문제나 방언 구획뿐만 아니라 해당 방언의 공시적 논의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산재해 있는 그동안 채록된 각 지역 방언 자료와 연구물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과 목록화가 요구된다. 또한 군이나 면 단위를 대상으로 한 개별 방언 연구 과정에서도 인접 지역 방언과의 대조 확인 작업이 게을리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3.4 방언의 내적 체계 확립

방언 연구는 개별 방언을 하나의 독립된 언어체계로 보고 그 체계 전반을 기술하거나 특정 현상을 선택하여 정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언 연구 과정에서는 해당 방언의 전체적인 공시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저형을 일일이 설정, 음운론적 과정을 구축하는 등 해당 방언의 내적 체계 전반을 기술하는 절차를 취한 예는 보기 힘들다.

- (12) ㄱ. 물로 묵고 땀 좀 시카라.
 ㄴ. 물을 묵으ᄃᆞᆫ 속이 시언하다.
 ㄷ. 물을 잘못 무: 가:(가꼬) 시곱했다.

(12)는 부산 방언의 예들이다(김영선 2012). ㄱ의 ‘-로’는 목적격 조사로 사용된

및 승주, 고흥 일부, 경남의 하동, 남해, 사천 등이 완전한 전이지대에 속하며, 진주, 고성, 거제, 함양, 산청 일부, 곡성, 보성 일부, 남원 등도 등어지대로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평가하였다.

다. 또한 ‘시카라’를 ‘식+히+아라’로, 또는 ‘식+후+아라’로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사동법과 관련된 전체 패러다임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ㄴ의 ‘-으으ㅣ’는 ‘-으니까’, 또는 ‘-으면’, ‘-어서’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ㄷ의 ‘가:(가꼬)’는 이 방언에서 연결어미 ‘-어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방언이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당 방언 형태소가 가지는 독자적인 기능과 의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성이 확인되었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다음과 같은 부산 방언에서 발견되는 활용형의 기저형 설정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13) ㄱ. 나타-나코-나타가-나짜마자, 다타-다따-다코-다꼬-다짜마자, 싸타-싸따-싸코-싸꼬-싸짜마자-싸차마자.....

ㄴ. 부따-부꼬-부꼬-부짜마자, 꺼따-꺼타-꺼꼬-꺼꼬-꺼짜마자.....

(13)의 예에서 드러난 활용 표면형을 고려하면 기저음소에서 /ㅎ/나 /히/의 동시 설정이 요구된다. (13-ㄱ)의 예에서는 표준어의 경우 어간말 자음이 /ㅎ/로, (13-ㄴ)의 예에서는 /ㅍ/으로 설정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 방언에서 각각의 활용형이 수의적인 격음과 경음으로 실현된다는 사실²⁷⁾은 개별 방언의 음소 체계 설정이나 각각의 형태소가 가진 공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저음소 /ㅎ/와 /히/ 중 어느 하나의 인정 여부는 해당 방언의 형태소 표기나 음운 현상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개별 방언의 공시성 문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활용형의 다양한 변이형을 고려할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 이 또한 음운 현상에 대한 공시성 여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14) ㄱ. 쫓다(쫓다), 쫓어라, 쫓어, 쫓우라, 쫓아라, 쫓:라, 쫓:, 주어라, 쫓어라, 쫓어, 쫓:라, 주:

ㄴ. 붓다(물을), *붓어라, *붓어, 부우라, 부아라, 부:라, 부:

ㄷ. 묵다(먹다), 묵어라, 묵어, 무우라, 무:라, 무:

27) (13)과 같은 수의적인 표면형은 경남 방언의 하위 방언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또한 필요하다.

(14)의 예는 모두 어간말 모음이 ‘우’로 끝나는 동사의 활용 예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비슷한 활용 패러다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방언 발음형, 표준 발음형, 문어형, 세대별 발음형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방언 화자에게 형성된 활용 패러다임이 복잡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방언의 형태소의 공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언이 가진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형태와 기능, 또는 의미의 규칙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15)ㄱ. 꺾+어라 → 꾸우라(박지홍 1974:33)

ㄴ. 꺾+어라 → 꾸버라(이근열 1997:131, 이효신 2004:27)

동일한 과정을 취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15ㄱ)은 (15ㄴ)과 다른 설명을 요구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취할 때 해당 방언의 유사 어간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14)의 예와 관련시켜 활용 패러다임을 확대할 수 있다면 부산 방언의 몇몇 관련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6)ㄱ. 누다(尿)/*누우라/누라, 뚜다(置)/*뚜우라/뚜라, 주다/*주우라/주라

ㄴ. 꺾다/꾸우서/꾸우라, 눅다/누우서/누우라, 붓다/부우서/부우라, 묵다/무우서/무우라, 죽다/주우서/주우라, 쫓다/주우서/주우라²⁸⁾

(16)을 통해 1음절 어간이 모음 ‘우’로 끝나고 ‘-으X’형 어미가 올 경우 어간말 자음의 탈락과 함께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이 해당 방언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²⁹⁾

28) 부산 방언에서는 (16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꾸버서/꾸버라, 누버서/누버라’ 형의 활용형 또한 가능하다. 이는 세대별 제보자의 공존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활용형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보자의 경우 복수의 활용 패러다임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29) 울산 방언을 대상으로 한 신기상(1986:45)에서는 ‘묵다/무’에 대한 해석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산청 방언을 대상으로 한 배병인(1983:127-128)에서는 어간말 음절 모음이 ‘우’이고 종성 자음이 ㄴ, ㄷ, ㄱ로 끝날 경우 어간말 자음의 기저형을 /z/로 처리한 뒤 /z/의 탈락과 함께 동음 사제 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이 방언에서 ‘불다/*부우서/부우라’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해당 언어 형태소의 공식성과 이들 형태소의 패러다임의 규칙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이들의 전체적인 인식 과정에서 기저형이나 표면형, 또는 규칙 등과 같은 형식적 도구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저간의 방식과 달리 해당 방언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에 근거한 기존 체계의 해체와 재구성이야말로 앞으로의 방언 연구가 취해야 할 태도라 할 것이다.³⁰⁾

3.5 국어의 통합적 기술 방안 수립

서울 방언이나 울산 방언이나 그 가치는 동등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 현상이 다른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대단히 제한적이다(최명옥 1989, 최전승 1989, 곽충구 2002). 아래 예는 1음절 어간 말 모음 ‘-우’에 후행하여 ‘-어X’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경남 방언에서의 모음조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17) 울산 방언(신기상 1986:44)

- ㄱ. (尿) 누- 노: 노:도
- ㄴ. (置) 두- 도: 도:도
- ㄷ. (授) 주- 조: 조:도
- ㄹ. (墓) 뚜- 또: 또:도

(18) 산청 방언(배병인 1983:93)³¹⁾

- ㄱ. 주- : 주고 조:서 주먼
- ㄴ. 누- : 누고 노:서 누먼
- ㄷ. 두- : 두고 도:서 두먼

(19) 함양 방언(전광현 1979:53-55)

- ㄱ. 주- : 조:
- ㄴ. 누- : 노:
- ㄷ. 두- : 도:

30) 이진숙(2010, 2013)의 경우 기저음소와 기저형을 일일이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음운 현상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31) 이 방언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재구조화한 기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배병인 1983:93). 꾸->꺼-: 꺼고 꺼서 꺼먼/ 쑤->썩-: 썩고 썩서 썩먼/ 두(墓)->따-: 떠고 떠서 떠먼/ 푸->퍼-: 퍼고 퍼서 퍼먼/ 추(?)>차-: 차고 처서 처먼

(20) 고성 방언

ㄱ. 두- : 두운따(박근배 2006:41) 도:따(정문연 1993)

ㄴ. 주- : 조오도(박근배 2006:41) 조따(정문연 1993)

(21) 합천 방언(박덕철 1993:50)

ㄱ. 꾸- : 꾸:도

ㄴ. 누- : 누:도

ㄷ. 주- : 주:도

ㄹ. 두- : 두:도

(22) 거창 방언(박명순 1987:56)

ㄱ. 푸- : 푸우도

ㄱ. 주- : 주우도

ㄴ. 두- : 두우도

ㄷ. 꾸- : 꾸우도

ㄹ. 추- : 추우도

(17)-(20)의 방언과 (21)-(22)³²⁾의 방언은 ‘우’로 끝나는 1음절 어간에 어미 ‘-어 X’가 후행할 때 어간말 모음(또는 ‘우’+‘어’)이 ‘오’로 바뀌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어간말 모음의 변화가 목격되는 (17)-(20)에 대해서는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표면형들이 다양한 방언에서 발견되고 있다.³³⁾

(23) $u+\text{ㄹ}(3) \rightarrow w\text{ㄹ}(3) \rightarrow \alpha$:(축약에 따른 장모음화)

그런데 만일 (23)이 타당한 규칙이라면 ‘ $w\text{ㄹ}(3) \rightarrow \alpha$ ’로의 축약에 대한 공시성이 입증되어야 마땅하다. 경남 방언의 음절구조제약 현상에 따르면 오히려 w 가 탈락³⁴⁾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신기상(1986:44)에서는 이 과정의 정당성

32) (20), (21)에서는 경남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완전순행동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33) 이익섭(1972:109)의 강릉 방언 자료 ‘노:요(누어요), 꼬:(꾸어)’, 이병근(1973:145)의 강릉 방언 자료 ‘도:(두어), 조:(주어), 노:(누어), 가꼬(가꾸어), 쩡고(쩡구어)’, 이진숙(2010:41)의 진도 방언 자료 ‘노:서(눠서), 노:도(눠도)’ 등에서 볼 수 있다.

34) 신기상(1986:44)에서 제시된 다음 예를 통해 음절구조제약조건에 따른 표면형을 확인할 수 있다. (楡)가꾸: 가까, 가까:도(分)나누: 나나, 나나:도(漬)당구: 당가, 당가:도(集)모두: 모다, 모다:도(東)무꾸: 무까, 무까:도(換)바꾸: 바까, 바까:도(收)거두: 거다, 거다:도(的)전주: 전자, 전자:도

을 위해 ‘k’wəŋ > k’oŋ, 權利 kwənni → konri’의 예를 들고 있다. 통시적인 예를 든 것은 (23)의 변화가 통시적인 현상임을 뜻하는 것이고 한자의 예를 든 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다. 설사 인정하더라도 축약의 공시성 또한 문제가 된다. 전광현 (1979:53)에서 든 ‘(’kwəŋ>)’k’oŋ’과 ‘(’kwənthu>)’konthu’의 예 또한 통시적인 과정이므로 (23)의 예는 통시적인 과정이고 따라서 (17)-(20)의 해당 예는 모두 통시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해당 방언의 유사한 어간형의 활용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제시한 내용들에 국한시켜 볼 때 이들이 통시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통해 /주~조/, /누~노/ 등과 같은 복수 기저 이형태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형태에 대한 재분석이라는 불합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신승용 2012:33).

형태소의 공시성과 규칙의 형식화에 기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패러다임의 규칙성에 있다. 그러나 언어 현실 속에서 특정 방언 체보자는 다양한 형태의 기저형을 어휘부에 저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입말과 글말, 표준어와 해당 방언, 세대차에 따라서 학습된 것들, 개인 방언,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가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형성, 전체적인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13-1) ‘쫓다’는 다음과 같은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24) ‘쫓다, 좇다, 줍다’

- ㄱ. 쫓다-쫓고-쫓으니-쫓으면-쫓어서-쫓어라 X - X
 ㄴ. X - X - X - X - 쫓아서-쫓아라 X - X
 ㄷ. X - X - 쫓우니-쫓우면 X - 쫓우라-쫓:라 - 쫓:

- ㄹ. 좇다-좇고-좇으니-좇으면-좇어서-좇어라 X - X
 ㅁ. X - X - 주우니-주우면 X - 주우라-주:라 - 주:
 ㅂ. X - X - X - X - 주아서-주아라 X - X

- ㅅ. 줍다-줍고 X - X - X - X - X - X
 ㅇ. X - X - 주우니-주우면 - 주워서-주워라 X - X

ㄱ, ㄹ은 규칙적인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 방언 구사자들에게 ㅅ은 표준어이다. 이들은 표준어가 ‘줍다-줍고-주우니-주우면-주워서-주워라’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그런데 ㅇ의 ‘주우니’가 ㄹ의 ‘주우니’보다 앞선 시기에 모

어화자에게 학습된 것이라면 이는 ㅅ의 ‘줍다’와 관련된 활용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라면 ㅂ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전체 활용 패러다임을 놓고 보면 ㄱ, ㄴ을 제외하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서 관련된 활용 패러다임에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ㄴ, ㄷ, ㄱ, ㅂ과 같은, 패러다임의 내적 규칙성에서 벗어난 형태들을 규칙이나 복수 기저이 형태 개념³⁵⁾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³⁶⁾

중요한 것은 (24)와 같은 형식의 개별 방언의 패러다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성을 띤 화석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방언 침투형이나 개인 방언, 유추 등의 개입도 부인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개별 방언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패러다임의 규칙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방언이 유지하는 패러다임의 종합적 분석과 규칙성 확보는 국어의 규칙적인 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어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마무리

국어 연구는 개별 방언 연구를 기초로 한다. 개별 방언 연구 결과물의 총합이 바로 국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방언 연구는 국어 연구의 기본적인 전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저간에 발표된 경남 방언 연구물들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방언 연구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보자, 조사 지역, 전이지대, 공식성 확인 과정, 국어의 통합적 설명 방안 등으로 나누어서 거론하였다.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한 본고에서의 분석 결과 초기 방언 연구물에서 제보자

35) 두 개의 이형태가 있을 때 복수 기저이형태 개념이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자료에는 둘 이상의 기저이형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다음은 이진숙(2010:44)의 진도 방언 예이다.

‘답~더웁~더우(薯)’(더웁따, 더웁개, 더아, 더우문, 더꼬, 덩뜨라)

‘삽:~시웁~시우(<쉽易)’(삽:따, 싱개, 시문, 시꼬, 십뜨라)

36) 이러한 이유로 신승용(2012:33)에서는 규칙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보았다.

정보는 대단히 빈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방언의 등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다. 더군다나 그 이후의 연구물에서도 제보자와 관련된 문제, 예컨대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 해석 작업이 부족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상이한 결과물에 대한 경우를 고려하여 학회나 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합동 조사나 공동 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조사 지역과 관련된 문제 또한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느 지역이 핵방언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그 지역 방언이 해당 방언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지역에서 확보된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물에서 제시된 결과물을 기초로 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을 면밀하게 선정하는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핵방언권의 선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이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기존의 기술을 가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함께 확보된 자료의 공시성 문제 또한 기존의 방언 연구물에서는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개별 방언 연구에서는 논의 과정 자체의 공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방언이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한다면 개별 방언의 공시성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되어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음운과 형태소, 그리고 이들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가지는 공시성 여부는 서로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인 기저음소의 설정은 형태소의 추상성에 기여하고 형태소의 추상성은 규칙의 형식화에 오류를 범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별 방언의 언어 단위에 대한 엄정한 공시성 판단 여부는 성공적인 방언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곧 국어의 종합적인 정체성 확보의 전제 작업이 된다. 국어는 개별 방언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방언의 공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분석은 국어의 공시성과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강기갑. 1985. “함양 지역어 용언의 접속법 어미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강기향. 1983. “경남 방언의 성조 연구- 함양, 산청 지방의 체언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 89-101, 한성어문학회.
- 강대갑. 1998. “함양 지역어의 지리언어학적 연구”,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 곽충구. 2002. “방언 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 423-480, 태학사.
- 김봉국. 2011.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31, 5-25, 동남어문학회.
- 김영선. 2012. “부산 방언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배달말』 50, 61-91, 배달말학회.
- 김재문. 1978. “서부 경남방언의 음운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 김재문. 1984. “경남 방언과 전남 방언과의 방언 경계선상의 음운 고찰: 모음 중심”, 『진주문화』 5, 23-45, 진주교대 부설 진주문화권 연구소.
- 김정대. 2000. “음운면에서 본 경남 방언의 구획”, 『인문논총』 13, 97-11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정대. 2007. “산청 지역어의 성격 - 창원 지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 『어문논총』 47, 131-183, 한국문학언어학회.
- 김정대. 2008. “경남 방언 친족어 연구- 산청 지역어 호청어를 중심으로-”, 『배달말』 42, 1-37, 배달말학회.
- 김택구. 1991. “경상남도 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 김택구. 2000.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 김형춘. 1993. “진주 방언의 음운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 류성기. 2013. “표준어와 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변화 연구”, 『방언학』 18, 289-324, 한국방언학회.
- 박근배. 2006. “창원 지역어와 고성 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박덕철. 1993. “합천 지역어의 음운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순. 1987. “거창 지역어의 음운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박선영. 2005. “서울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 박정수. 1976. “/·/ 음소(音素)에 대하여: 경남 산청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 267-286,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박정수. 1993.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 논문.
- 박정수. 1999. 『경남 방언 분화 연구』, 한국문화사.
- 박정수. 2008. “진주 사봉면 음소의 체계와 방언 지리”, 『진주문화』 18, 93-124, 진주교대 부설 진주문화권 연구소.
- 박지홍. 1974. “부산 방언의 연구: 방언권의 설정과 어휘·말본에 대하여”, 『부산

- 교대 연구보고, 10-1, 7-41, 부산교대.
- 배병인. 1983. “산청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음소 체계와 용언 활용 시의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서주열. 1966. “전남 방언과 경남 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특히 단모음 체계에 의한 방언 구획 시론”, 『어문학 논총』 7, 127-145, 조선대 국어국문학 연구소.
- 서주열. 1981. “전남, 경남 방언의 등어 지대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 신기상. 1987. “동부경남 방언의 음운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신승용. 2012. “음운사와 방언, 방언과 공식음운론”, 『방언학』 16, 7-41, 한국방언학회.
- 오종갑. 1998. “‘ㄱ, ㄴ’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 오종갑. 2000. “영남 하위 방언의 모음 음운 현상 대조: 포항, 상주, 산청, 양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글』 250, 69-116, 한글학회.
- 오종갑. 2001. “영남 하위방언의 자음 운운현상 대조- 포항, 상주, 산청, 양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 『어문학』 70, 73-103, 한국어문학회.
- 유필재. 2000. “서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위평량. 1999. “전남·경남 접경지 방언의 음운: 단모음체계와 /·/의 변화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7, 101-12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이근열. 1997. “기장 해안 지역의 음운 분화 연구”, 『우리말연구』 7, 105-148, 우리말학회.
- 이근열. 1997. 『경남 방언의 음운론』, 세종출판사.
- 이근열. 2013. “부산 방언의 어원 연구 1”, 『우리말연구』 35, 182-207, 우리말학회.
- 이병근. 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133-147, 진단학회.
- 이상규. 2004. 『국어 방언학』, 학연사.
- 이익섭. 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96-191.
- 이익섭. 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진숙. 2010. “진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진숙. 2013.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이현정. 2008. “산청 지역어의 음운론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이효신. 2004. “부산 방언의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 논문.
- 임석규. 2009. “방언조사 방법론의 어제와 오늘”, 『국어학』 54, 325-352, 국어학회.
- 전광현. 1979. “경남 함양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동양학』 9, 37-5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정영주. 1987. “경상남도 울산 지역어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현상: 울산 지역어의 낱말을 중심으로”, 『논문집』 7, 3-87, 대한신학교.
- 정영주. 1988. “경상남도 함안 지역어의 세대차에 의한 음운현상, 함안 지역의 낱말을 중심으로”, 『논문집』 8, 3-91, 대한신학교.
- 조규태. 2001. “모음 체계”, 『경남 방언 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한국문화사.
- 최명옥. 1989.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63-80, 진단학회.
- 최명옥. 1994/1998. “경상도의 방언 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외골 권재선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 최명옥. 1998. “방언”, 『새국어 생활』 8-3, 193-202, 국립국어원.
- 최범훈. 1986. “경남 거창 위천 지역어 연구”, 『논문집』 19-1, 7-36, 경기대.
- 최전승. 1989. “규칙 재배열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단모음화와 i-umlaut”, 『일산 김준영 선생 화갑 기념 논총』, 형설.
- 최중호. 1984. “고성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최중호. 1998. “고성(固城) 지역어의 음운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 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 방언 자료집』, 경상남도편 8.
- 한성우. 2009. “방언 음운론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54, 354-381, 국어학회.
- 홍순영. 2005. 『경북경남 접경지역어의 연구: 고령·합천 지역어를 중심으로』, 계명대 출판부.
- 황병순. 1996. “경남 방언의 연구 현황과 연구 과제-서부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8, 1-36,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김영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화번호: 051-200-7027

전자우편: kcy1027@hanmail.net

| | |
|---------|--------------|
| 투고논문접수일 | 2015년 8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8월 24일 |
| 심사완료일 | 2015년 9월 12일 |